

# 전남 시장·군수 '민주당 vs 평화당' 격돌

### 민주당, 공천 향한 치열한 경쟁 벌여

### 평화당, 경쟁력 있는 7명 우선 공천 기선 제압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세론 차단에 나섰다.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찌감치 공천, 밀바닥 표심 출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독주를 막고 지역별전을 위해서는 평화당이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전남지역 시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을 우선 공천했다.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지역도 조만간 확정해 일찌감치 평화당 대 민주당 구도를 공식화한다는 전략이다.

10일 전남지역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평화당은 전남 고흥군수 후보에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강진군수 후보 광역체 전 전남도의원, 구례군수 후보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 등 3명에 대해 공천을 확정했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임호경 화순군수 후보,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를 확정, 후보가 7명으로 늘었다.

평화당은 가능한 단수 공천을 목표로, 북수 후보 지역의 경우 심사와 면접, 지역 여론 등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단수 후보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 따른 분열과 시간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평화당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박병중 군수의 3선으로 무주공산이 된 고흥군수 선거는 양당간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평화당이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고흥군수 후보로 확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송형근 전 전남도의원, 김학영 전 고령군

찰서장, 공영민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장세선 고흥군의회 의원이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표발을 갈고 있다. 송 전 부시장과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 양측의 예측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체 전 전남도의원도 자신과 상대할 강진군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는 강진원 현 군수와 이승욱 전 여수부시장, 장정록 전 강진읍장 등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화당 구례군수 후보로는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출중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이 공천장을 들고 표발을 누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왕해전 구례 발전포럼 대표와 김순호 전 구례군수 비서실장, 최성현 전 구례부군수, 이창호 전 전남도의원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다.

구례군수 선거도 현직이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전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해남군수 선거에는 평화당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았다. 민주당 해남군수에는 이길운 전 해남군의회 의장,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 윤재갑 전 해군군수사령관,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이 뛰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 역시 평화당 소속 박홍률 현 시장과 민주당 후보간의 물리칠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수성개선 나선 박 시장에 맞서 민주당 후보군으로 중요한 목포시의원과 최기동 전 목포시장, 김중식 전 광주시경제부시장,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이 경쟁하고 있다.

### ■ 기초단체장

선거구	민주당	평화당
목포	김중식·김한창·조요한·최기동	박홍률
광양	김재우	
곡성	유근기	
구례	김순호·왕해전·이창호·최성현	박인환
고흥	공영민·김학영·송형근·장세선	송귀근
보성	김철우	
화순	구중곤·이형권	임호경
강진	강진원·이승욱·장정록	광역체
완도	신우철	
해남	김석원·김왕근·윤재갑·이길운	명현관
함평	김성호·김성호·김천희·박래욱·윤한수	이윤행

화순군수 선거는 평화당 후보로 임호경 전 군수가 확정되면서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구중곤 현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임 전 군수가 4년만에 리턴매치가 성사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형권 화순농협조합장과 구중곤 현 군수가 공천 티켓 경쟁을 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안병호 현 군수가 '미투' 의혹이 불거져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함평군수 선거도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윤행씨가 평화당 공천자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천희 셋별 유치원 원장, 윤한수 전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 김성모 전 함평군변영회장, 박래욱 전 전남도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평화당 조직과 3선 출마를 포기한 안 군수의 민주당 조직간 격돌이 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 '평화당 돌풍'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이지만, 출마 여부는 미지수다. /박정욱기자 jwpark@

## 6·13 선거 현상

### 광주시장 후보

### 강기정, 청년 맞춤형 정책 7가지 발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청년참여예산활동제 도입, 500억원 청년혁신펀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 맞춤형 정책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강 후보는 내놓은 공약은 ▲청년의회 운영 ▲청년참여예산활동제 도입 ▲청년청사 신설 ▲광주형 청년수당 확대 ▲청년희망공간 1000개 조성 ▲500억원 청년혁신펀드 운영 ▲청년 300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강 후보는 "청년의회와 청년참여예산활동제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적 권리주체로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면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이용섭 '행복한 광주 5대 공약' 발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5대 공약은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지역특화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확대 ▲광주형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제 도입 ▲치매안심센터 필수인력 증원 ▲광주형 노인복지회 소보장제도 도입 등이다. 5대 공약 주요사업 정책으로 노인건강타운을 명품 스마트 헬스 케어 복합단지로 업그레이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 전남도 교육감 후보

### 고석규 "힘있는 교육감되겠다" 전남교육감 출마



고석규(61)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지난 9일 6·13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세움에 나섰다. 고 전 총장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학교폭력과 미세먼지 등 안전문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공교육이 위협을 받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을 오로지 사람을 키우는 일뿐"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는 우리 교육현장이 갖춰야 할 과제는 안전과 자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모형을 전남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힘 있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양향자, 교통·환경분야 11대 공약 내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광주시 교통, 도시재생·계획, 환경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빅데이터 활용 상송교통체증 해소 ▲불법주차문제 해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그랜드디자인과 연계 조속한 개통 ▲도시철도 역사 환승 자전거 주차장 확충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개선과 국제노선 다변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교통량 예측 시스템을 도로교통 환경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설명하고, 차량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 광주 말바우시장 등 4곳 공영주차장 짓는다

###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서 광주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주변 교통 체증과 협소한 주차공간에 따른 불법 주차차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가했다.

시는 2019년까지 국비 109억원 등 총 181억원을 들여 ▲말바우시장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양동산업용품시장 주차장 시설 개선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자의 거리 주차장 시설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180억원이 투입되는 말바우시장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옛 동신자동차학원 1만641㎡에 2019년까지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현재 말바우시장은 하루 평균 2만7000여 명이 방문하는데 반해 시장 내 주차공

간은 126면에 불과해 주차 불편이 컸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바우시장이 지난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3년간 국비 17억원 등 총 34억원을 지원받게 될 것을 계기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는데 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동산업용품시장과 대인시장, 전자의거리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8800만원을 투입해 포장작업, 관제시스템 등을 개선하게 된다.

김진백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장 내 불법주차차 문제, 주차난 해소·해결 등을 통해 시장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전통시장 내 주차장의 안전관리와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1인 미디어 프렌드

### 위촉식 갖고 활동 본격화

광주의 생생한 이슈 현장과 축제, 행사 등을 취재해 SNS로 공유·확산하는 '2018 광주시 1인 미디어 프렌드, 소셜 영상콘텐츠창작자' 12명이 10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인 미디어 프렌드, 소셜 영상콘텐츠창작자'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시청 참여를 촉진하고 광주의 매력을 찾아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인 미디어 프렌드는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5명, 소셜 영상콘텐츠창작자는 7명으로 주요 정책과 축제, 행사 등 시와 관련된 이슈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거나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게재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개인 SNS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광주의 불거리와 먹거리 등 다양한 도시 브랜드를 개발해 소개하며 2019광주세계수업연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수축산식품대축제 물건 구매하는 평화당 대표 민주당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 앞 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대통합 농수축산식품대축제에서 각 부스를 돌며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